

현대 消費社會와 대학생의 價値觀

李 恩 奉
(德成女大 哲學科)

지금까지 우리는 物質的 豊요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여 왔다. 특히 현대의 거대한 消費社會 구조 안에서 물질적 가치가 범람함으로써 고독한 精神의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물조차 商品化되는 가운데 순수한 精神의 價値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소비사회의 병폐 속에서 성장해 온 우리 대학생들의 思考形成과 價値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머리말

오늘날처럼 학교교육과 현실간, 세대간, 지역간, 각 집단 간에 意識의 乖離가 있어본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전통적 가치관은 기성세대 사이에서 미미하게나마 아직 살아 있다고 보지만 일부 消費의 英雄들에 의해 무참히 무너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傳統價値가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사회적 현상들은 이미 깊숙히 진행되어 왔으며, 다만 世界歷史의 地殼變動이라고 할 만한 脫冷戰時代를 맞이하여 더욱 급속히 표출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학교교육이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 되지 못하고 주로 形式的 普遍價値를 知的 抽象 속에서 견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현실의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 글

에서는 현대의 거대한 消費社會 構造 안에서 젊은 세대들의 思考形成과 價値觀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한다.

2. 物質的 價値의 범람

현대 한국인들이 물질적 가치의 범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陳腐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실상을 깊이있게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등한히 했다. 오늘날 우리는 物質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물질의 生成·完成·消滅의 끝없는 리듬에 합치하고, 물질의 끊을 수 없는 연속에 따라 살고 있다. 物質이 우리에게 보내는 無言의 시선, 그 현혹적 시선에 呪縛되어 奴隸가 되다시피 하였다. 물질은 끝없이 生産性을 높이고 또한 價値交換의 法則에 따라 산같이 쌓이고 쌓여 서울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상품들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인도의 술, 일본

제 전자제품, 중국의 도자기, 파리의 콜세트, 러시아의 모피, 미국계 통조림, 열대지방의 향료 등. 그리고 그 물품들마다에는 간단명료한 기호 트 된 상표나 아라비아 숫자가 무슨 呪文처럼 붙어 있다. 상점의 쇼윈도에는 마치 祭床처럼 차려진 상품이 즐비하게 쌓여 있으며, 사람들은 魔法에 걸린 것처럼 끊임없이 晝夜를 자극받는다. 산같이 쌓여 있는 상품을 보면 마치 젓과 꿀 대신에 케첩과 플라스틱 워로 네온사인이나 비추는 가나안 溪谷을 연상시킨다. 또 다른 비유를 들면 物質은 마치 번식하는 植物群을 연상시킨다. 모든 상품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물질은 자신의 生存法則·交換價値에 따라 번성을 계속하여 하나의 '물질의 정글'을 이루고 있다. 그 정글 속에 사는 현대의 새로운 야만인들은 무한히 확대된 慾望으로 먹이를 사냥하고 있다. 가나안 溪谷으로 비유된 물질의 累積이 꿈나라를 예전케 하는 母性的 측면이라 한다면, 정글로 비유된 물질의 繁盛은 냉혹한 生存競爭과 暴力性을 낳는 男性的 측면을 반영한다. 그 어떤 측면이거나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전지전능한 힘이 조정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 힘을 擬人化시켜 명명한다면 物神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物神도 역시 인간을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溪谷으로 인도하는 母性的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律法을 어긴 자에게 냉혹한 懲罰을 가하는 男性的 측면도 있다. 다만 物神은 우리에게 靈의 세계와 차단시켜 영원히 물질의 품 안에서만 편안함을 느끼게 하거나 물질의 정글에서 새로운 짐승들이 剽奪하게 만든다. 특히 物神의 律法은 냉혹하여 어떠한 수단·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것이다. 物質의 안온함과 律法 속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이 없는 절간같은 방이나 自然이나 洞窟 속에서는 단 하루도 살기 어렵고, 그런 寂寞 속에서는 정신이 미치게 마련이다. 物質에 대한 依存性에서 前者의 가나안 溪谷이 만들어졌고, 물질에 대한 剽奪感에서 後者の 정글이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依存성과 剽奪感은 실상 表裏關係에 있는 것으로서 현대인의 心理的 脆弱性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物神의 충실한 信

徒들이 갖는 공통적인 마음이기도 하다.

분명히 物質에는 하나의 使用價値 이상의 그 무엇, 즉 물질의 累積은 생산물의 總和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덩벙한 過剩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稀少性에 대한 마법적이고 결정적인 否定이 어떤 안온함으로 이끄는 꿈과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무진장한 豊足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서 이상할 정도로 再發見된 自然(인위적인 자연)을 연상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物神의 奴隸(혹은 승배자)들은 꼭 필요에 의해서만 물건을 사들이지 않는 것 같다. 무진장한 윤택함의 이미지를 換喩하는(즉, 祭祀 때에 풍족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 무엇을 위해 상품을 사는 것이다. 즉, 消費者의 마음 속에 있는 이미지를 위해 商品이라는 部分을 사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全體를 위해 部分을 사들인다. 또한 物質은 서로서로 하나의 全體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가령 衣類品店과 家電製品店은 묘하게 서로 손짓하고 응답하며 하나의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다. 소비자는 특별한 有用性 때문만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쇼윈도·광고·기업·상표 등은 전체로써 물질의 집합체를 구성하고, 그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소비자를 더욱 다양한 일련의 동기로 유혹하여 구매 충동을 느끼게 하는 물질의 網을 구성한다.

物神은 商業센터와 文化센터를 묘하게 결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似而非神이 아니고 진짜 神으로 인식되도록 현혹시키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商業센터로 각광받고 있는 drugstore의 화려한 등장에서도 볼 수 있다. 百貨店으로 불리우는 department와 크게 다른 드럭스토어의 새로운 등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백화점은 단일 품종 대량 생산시대에 알맞게 각 칸마다 同一商品을 量的으로 쌓아 놓은 형태라 할 수 있다면, 드럭스토어는 商品이 종류별로 나열되지 않고 어떤 精神的 記號와 論理를 가지고 混合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롯데월드와 같은 모습이 대표적이다. 그러한 종류의 드럭스토어에서 선전하는 광고문을 보면 새로운 상업센터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새로운 생활의 지레, 새로운 삶의 방법, 그것은 냉·난방이 완비된 상점에서 쾌적한 쇼핑을 즐기는 것입니다. 매일의 식료품이나 의류·꽃·최신 소설·카세트테이프를 남편과 자녀들이 영과 구경을 하는 동안에 쇼핑하실 수 있고, 그후에 같은 장소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수영도 즐길 수 있습니다.”

즉, 드럭스토어에는 카페·영화관·서점·홀·잡화상·의류 및 그밖의 물건이 萬華鏡式으로 배열되어 있고 스포츠와 오락, 제법 고급인 文學作品集이나 클래식 음악도 구할 수 있다. 百貨店이 노점 시장의 광경을 보여준다면 드럭스토어는 消費 자체를 위한 일종의 리사이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리사이틀이 풍기는 似而非 藝術性은 물건들의 記號의 배열에 따라 演奏되기 때문이다. 상품의 有用성과 地位가 演奏에 따라서 승화되는 모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품위있는 교양을 갖춘 신사·숙녀들은 문화적인 사치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거기에는 고급 식료품과 화랑도 있어서 순수 예술이 쉽게 消費品과 섞일 수 있으며, 음담패설집과 함께 考古學概論이라는 책이 나란히 꽂혀 있다. 거기서는 물질이라는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灰色의 물질(知性)도 파는 것이다. 고독한 정신적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물도 쉽게 灰色의 물질로 되어 상품화한다. 상인들은 “물건을 파는 것만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더욱 고상한 다른 목적이 있음을 은연중 암시하며 자신이 物神의 전도사로서 국민의 교양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드럭스토어와 같은 모습이 都市全體로 확대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新都市 建設에서 住居用 빌딩이 오락 중심 빌딩으로부터 방사선을 이루며 배열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조합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이 그 통로를 마련하는 거대한 구조라고도 할 수 있다. 상업 활동에서, 특히 高級消費者를 끌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용적 가치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美的이고 藝術的인 분위기를 불러 일으키며 동시에 灰色의 물질도 파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진정한 神을 버리고 物神崇拜로 背教한 良心이 보상될 수 있는 길이

약간이라도 마련될 것이다. 物質에 대한 依存性과 剝奪感이라는 兩極感情이 은폐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상품을 교양화하고 리사이틀 演奏를 하며 灰色의 물질을 파는 것을 통해 할 수 있다.

物神의 지배를 받는 현대인은 순수한 精神의 價値를 모른다. 灰色의 물질을 파는 현대의 파리사이파 사람들은 순수한 唯物論者들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 그들은 상품의 가치에서만 진정한 가치를 알 뿐이므로 상품화될 수 없는 정신적 가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더욱 현실한 것은 파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자신이 진정으로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그들은 철학적 진리와 윤리적 가치를 무엇 때문에 배워야 하는지 모른다.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灰色의 物質로 통조림된 약간의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 상품화할 수 있는 것, 드럭스토어에서 연주될 수 있는 것만이 진정으로 가치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상품화할 수 없는 것, 인간의 궁극적 고독에서 깨치는 진리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3. 物神의 布教師-매스미디어

消費社會에서 매스미디어는 크게 활자로 된 신문과 TV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物神의 奴隸가 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매스미디어이므로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독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情報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 즉 눈에 부딪쳐 오는 자극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혀 비현실적인 것, 커뮤니케이션이라는 媒介物로 인하여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記號로 還元된 것이기도 하다. 신문 기자가 ‘아’라고 썼다고 해서 읽는 독자가 반드시 ‘아’로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나 ‘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드골 장군의 호위병들이 파리 경찰 지하실에서 자동소총 사격훈련을 하는 장면을 「파리마치」誌가 게재했을 때 그것을 모방한 청소년의 데려가 발생하였다. 그 사진이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하나의 정치적 배경을 가진 뉴스로 보여지지 않고 단지 폭력의 유혹으로 비취

진 것이다. 신문 기자가 기사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物神의 奴隸가 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스미디어가 제공해 주는 것은 현실 그것이 아니라 現實의 眩惑일 뿐이다. 아마존의 정글이나 사람이 죽어가는 비참한 전쟁에 관한 사건이라도 하나의 寓意의 記號에 불과하다. 역설적이지만 그러한 記號가 있으므로 인하여 安心感을 느낄 수 있다. 걸프전쟁도 마치 전자오락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긋하게 즐기면서 볼 수 있다. 사실 실제의 전쟁을 TV로 중계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記號라는 보호벽으로 現實에서 도피할 수 있고 철저히 현실과 차단된 채 현실을 부정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적인 安全裝置일지도 모른다. 세계에 관한 이미지를 보면서 잠시 현실로 들어가 보다가 이내 곧바로 현실로부터 빠져 나와 자신의 安全感을 느끼는 이 기막힌 즐거움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이미지, 記號는 현실을 차단하고 봉인한 架空의 世界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느낀다. 현실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현실과 나 사이에는 책임이 개입되는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관심의 관계도 아니다. 다만 호기심의 관계일 뿐이다. 현실과 나 사이에는 철저한 인식이 개입되는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지의 관계도 아니다. 다만 현실에 대한 否定의 관계일 뿐이다. 이처럼 호기심과 부정이 現實에 대한 전체적 행동, 현대 소비사회의 특징인 觀念의 行動을 지시한다.

이러한 觀念性은 私生活의 일상적 회로를 따라 더욱 철저한 歪曲과 倒錯이 이루어진다. 베트남전이나 걸프전과 같은 영상을 앞에 두고 느긋함을 느끼며 바깥 세계의 잔혹함이 倒錯의 인열기를 동반한 채 하나의 오락으로 여겨진다. 현실의 잔혹함과 불안함 가장 알맞게 차단해 주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日常性을 추상적 영역으로 폐쇄한다. 개인의 사생활이 神聖不可侵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현대인에게는 그 폐쇄된 추상성의 그림자가 더욱 심하다. 특히 칼라 TV는 가령 아프리카인의 飢餓와 헐리우드의 화려한 舞臺를 단 몇 초 사이에 바꾸는 동시에 행복한 상품의 CM을 보여주는 등 밖의 객관적 현실을

‘等價記號의 連鎖’로 제편해 버린다. 더욱이 본질적으로 상업성을 벗을 수 없는 현대의 매스미디어가 현실을 寓意化하고 戲畫化하는 의도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 사생활을 神聖不可侵의 영역으로 보호받는 현대인은 환경에 대한 안전환 適應과 否定 위에서 현실의 살아있는 모습을 자신의 폐쇄된 ego의 좁은 회로를 통해 退行的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全體性이라는 객관적 시점에서 보면 日常性은 매우 빈곤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안으로 향한 재해석의 시점에서 보면 의기양양한 행복감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여기에서 私生活의 일상적 영역과 매스컴과의 깊은 유기적 結合과 共謀를 볼 수 있다. 평온 무사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현실과 역사의 왜곡된 眩暈을 필요로 하고 때때로 따분한 日常性의 기분을 고조시키기 위해 恒常的인 暴力이 필요해지는지 모른다. 마치 온실에서 발효되는 술과 같이 평온 무사한 日常性의 온실에서 事件이나 暴力이 생겨나온다. 그러한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고서 어떻게 견딜 수 있던 달인가?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평온 무사한 안전이 항상 정당한 것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도 外的 世界의 暴力과 非人間性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즉, 日常性이 자신과는 정반대인 위대함이나 숭고함을 갖기 위해서 運命·受難·宿命의 記號가 보호 지대로 꽃 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日常性은 이처럼 운명의 희생자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음침한 쾌락’과 기묘한 혼합물을 이루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이러한 消費社會의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전파하는 布教師 노릇을 하고 있다.

4. 젊은 세대의 價値觀

日常性의 온실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은 술의 발효 그 자체와 같이 현대 소비 사회의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첫째, 현실에 대한 느낌이 없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젊은이들은 우선 生命에 대한 畏敬感이 없다. 그런데 生命에 대한 畏敬感은 어디서 배우는 것인가? 교과서에서 배우는가? 실제로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과 직접적인 感情交流을 하고 사랑을 나누어 봄

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이다. 溫室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바깥 현실로 나와 생명과 교감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 가슴으로 느껴 하지는 못한다. 가령 ‘새벽’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새벽을 진정으로 알려면 실제로 새벽에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고요함과 아침이슬, 안개, 꿈틀대는 생명들의 동작, 자연의 고요함, 그리고 그밖의 신비한 요소들까지 ‘느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실에 나와 봄으로써 느껴지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 젊은이들은 현실에 나와 볼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머리로만 안다. 더욱이 칼라 TV의 영상을 媒介로 現實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매우 倒錯的인 생각을 갖기 쉽다. 칼라 TV나 VTR에서 보는 수 많은 暴力物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현실은 오히려 영상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생명이 아무렇게나 다루어지는 폭력오락물의 영향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別種들이 생겨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온실에서 발효된 술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폭발물을 지닌 위험한 世代를 生産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폭력오락물들은 대부분이 비현실적인 것들이고 단지 ‘음침한 쾌락’만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倒錯的인 思考를 하도록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TV에서 방영되는 멜로드라마들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不倫의 關係나 暴力을 美化시키는 물론 非正常的인 성격의 소유자들을 영웅화시키기도 한다. 한다 하는 大衆小說들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전에는 新聞小說을 쓰는 作家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다음 주 중에 주인공을 한번 벗겨 볼까?” 하는 것이었다.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小說의 주인공들은 작가의 머리 속에서 하나의 꼭두각사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그 주인공들은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현실의 상투적인 통념을 반영하는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인 꼭두각사들

이다. 만약 그 주인공들이 현실에 바탕을 둔 인물이라면 作家의 恣意(대부분 독자들의 ‘음침한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합하는)에 의해 주인공을 벗겼다 달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가라고 해서 자기 소설의 주인공들을 바둑판의 바둑알을 굴리듯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주인공들의 삶에 작가 자신이 매어있고 구속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의 ‘마음내키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삶에 쫓아 가며 몰입되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의 生命에 대한 불감증은 이러한 비현실성 때문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圖式的인 思考方式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지선다형 문제만을 학습하는 入試爲主敎育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신앙감이나 신부감을 고를 때에도 세 사람 중에서는 택하지 못하지만 네 사람 중에서는 하나를 찍어낼 수 있으리라고 농담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이른바 북한의 주체사상이든 공산주의이든 의식화된 학생들과 토론을 해 본 사람들은 그들의 도식화된 사고에 놀라서 마치 벽에 부딪치는 듯한 답답함을 경험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사회도 결코 이상적인 것은 아니고 많은 문제를 내포한 사회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消費社會의 病弊는 바로 資本主義 사회의 병폐이기도 하다. 이처럼 많은 병폐를 안고 있으면서도 社會主義國家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南韓의 政治에 非民主的인 惡行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貧富隔差와 美國과의 무역마찰이 있으면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인데, 도식화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일보의 양보도 하지 않는 하나의 도그마를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現代史(해방 후의 역사)에서 南韓政權은 친일파 세력이 잠았으므로 정통성이 없고 北韓이 정통성에서 우월하다는 것,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한국의 역대 정권들(지배세력들)은 미국의 하수인으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여기서 그들은 논리를 비약하여 북한의 김일성은 진정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일당독재인 북한의 노동당이 민중을 대변한다고 본다), 貧富隔差의 解消와 진정한 平等을 위해서는 모든 財産을 國有化해야 하고, 民衆이 主人이 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뽑는 選舉方式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므로 革命的 方法(무력의 사용도 불사)으로 해야 한다……긴 이야기의 필요없이 이러한 時代錯誤의인 의식화 교육에 어떻게 쉽게 빠져 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을 신념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온갖 時代의 風霜을 겪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으나, 이러한 일이 현실로서 존재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낳게 만드는 우리의 劣惡한 政治現實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학생 운동과 운동권 학생들의 수준 저하 경향도 인정한다. 그러나 크게 보면, 物神의 支配를 받는 現代 消費社會의 총체적 영향 하에서 학교교육의 비정상 운영에 큰 원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入試教育은 이미 교육은 실증되고 지식을 파는 入試學院처럼 변한 지 오래다.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은 너무 지나치게 知的인 것만을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고, 현실과의 연관 속에서 삶의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즉, 그들은 '세벽'이라는 단어가 저녁의 반대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벽에 대한 진정한 느낌이 없다. 마찬가지로 民主主義나 資本主義나 하는 것도 머리 속 관념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진정한 느낌이 없다. 현대의 소비사회가 상품화되는 것 이외의 가치를 모르게 만들고 현실과 단절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에서라도 깨어있으면 그 폐단은 줄여줄 수 있을 것인데, 입시교육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단편적인 知的 學習의 場으로 돌아 넣는 살인적인 입시 경쟁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깊이깊이 병들어 가고 있다. 지적 관념 속에서 얻은 지식들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서

마치 邪教에 떨어지기 쉬운 사람처럼 몇 권의 의식화 교재만을 읽고도 쉽게 운동권 학생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을 觀念的 圖式 속에서 이해하면 분명하게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교육과 사회 현실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학교교육만이라도 잠에서 깨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랄 뿐이다.

5.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여 왔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개인적·사회적 富가 축적되던 행복한 미래가 올 수 있다고 믿었다. 경제적인 성장은 풍요함을 가져다 주고 풍요함은 또한 民主主義를 꽃피울 것이라고 믿어 왔다. 절대적 빈곤이 사라지면 곧 平等社會를 이룰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러한 갈브레드적인 낙관적 경제학은 오늘날 反論에 부딪치고 있다. 우선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富와 財의 增加는 그에 비례하여 그 보상으로 심각한 公害를 낳는다는 것을 看過했다. 公害는 산업의 발달과 기술 진보의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 소비의 구조 자체에 걸려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경제활동에 의한 집합적 생활 환경의 황폐화, 소음과 대기 오염, 물의 오염, 자동차의 범람으로 인한 거대한 기술적·심리적·人的 缺損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고 과잉 설비투자, 가솔린의 추가 소비, 교통사고에서 만나는 거액의 치료비 등이 소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다. 生産性의 증가는 어느 단계에 이르면 '成長에 의한 成長의 治療'라고 하는 類似療法이 요구되는 惡循環이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合理化와 大量生産의 기술적·문화적 결과가 가져 오는 '文化公害'로 인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기구 내에 環境廳이라는 것이 있어 환경오염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지만, 대량 소비 사회의 산물인 저질 영화나 각종 文化公害犯에게는 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령 '知性侵害罪'를 적용할 수 있는 또다른 法을 만들어야 할까? 文化的 公害는 풍요함의 리듬과 더불어

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 성장에 의한 행복과 평등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함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 성장을 중단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라도 오늘날의 物神의 正體를 꿰뚫어 보는 많은 지식인을 기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한 쪽의 성장이 다른 쪽의 불균형을 가져 오는 생산성의 승배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에게는 균형있게 사

고하는 지식인이 필요하다. 그러한 지식인에게 는 밖을 향한 지식의 추구로만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안을 향해, 우리의 영혼 으로부터 들려 오는 소리를 듣는 쪽으로 이성을 사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많이 소유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의 철학이 다시 확립되지 않고는 오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

<投稿案内>

「大學教育」 제54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敎授 및 社會奉仕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敎育과정이나 敎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본문에 게재된 글에 대한 反論 원고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敎授談論	③ 學科別 敎育課題
-------	--------	------------
2. 枚 數—200자 원고저 35매, 45매 또는 55매(②는 20매 또는 25매)
3. 期 間—1991년 9월 20일
4. 稿 料—매당 3,000원(체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敎育協議會(150-010)
(TEL 783-3891, 780-7942, FAX 780-8311)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談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